



08-48 (통권 226호)
2008.12.5

CHAIRPERSON NOTE

경제 이슈

- 세계 경제 디플레이션 우려 고조
- 기업의 수익성 및 재무구조 악화

경영 노트

- 위기서 빛나는 '가족기업'

사회 트렌드

- 내년 10대 소비 트렌드

차이나 리포트

- 중국 외환보유액의 운용과 시사점

저널 브리프

- 경제위기 난국 타개는 녹색 성장과 녹색 기술로

洗心錄

- 천시(天時), 지리(地利), 인화(人和)

□ 세계 경제 디플레이션 우려 고조

- 세계 경기 침체가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국제원자재 가격 하락 등으로 물가상승률이 하락하고 있어 디플레이션 우려가 고조
 - 디플레이션 : 사전적인 의미는 전반적인 물가수준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현상을 말하나, 보통 경우 경기 침체와 물가하락이 동시에 진행되는 상황을 지칭하는 것으로 쓰임
 - 경기 침체 : 2008년 3분기의 전기대비 성장률은 OECD(평균) -0.1%, 유로지역 -0.2%, 일본 -0.1%, 미국 -0.1%로 침체가 심화
 - 인플레이션 : 2008년 10월의 소비자물가는 OECD(평균) 3.7%, 유로지역 3.2%, 일본 1.7%, 미국 3.7%로 전월에 비해 각각 0.8%p(OECD 평균), 0.4%p(유로지역), 0.4%p(일본), 1.2%p(미국)만큼 감소함
- 한편, IMF에 따르면 신흥개도국은 경제성장률은 2009년에 5.1%를 2008년에 비해 1.5%p 감소, 소비자물가는 7.1%로 2.1%p 만큼 하락이 예상되어 선진국보다는 약하지만 디플레이션 우려 존재

□ 기업의 수익성 및 재무구조 악화

- 한국은행(12월 4일)에 기업의 매출은 호조를 보였으나, 수익성(매출액영업이익률)과 재무구조(부채비율)는 악화되었음
 - 매출액 증가율 : 2008년 3/4분기 상장·등록법인의 매출액증가율은 28.6%로 전분기보다 3.8%p 상승
 - 매출액영업이익률 : 원자재가격 상승과 외화부채에 대한 평가손실 등 영업외비용 증가 등으로 3/4분기에 5.9%로 전분기보다 1.7%p 하락
 - 부채비율 : 환율상승으로 인한 원화로 평가된 외화부채가 늘어남으로써 2008년 9월말 법인의 부채비율은 104.3%로 6월말 95.4%에 비해 8.9%p 상승
- 한편, 1~9월중 건설업 및 서비스업의 영업, 투자, 재무활동의 현금흐름이 반영된 현금감소액은 각각 73억 원, 6억 원이었으나, 제조업 및 전기가스업의 현금 증가액은 각각 41억 원, 497억 원임

□ 위기서 빛나는 ‘가족기업’

- 글로벌 경제위기를 맞은 요즘 비상장 가족기업들이 경영인들 사이에서 벤치마킹의 대상으로 떠오르고 있음
 - 오너가 단기이익을 쫓는 주주의 압력을 의식하지 않고 긴 안목에서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할 수 있음
 - 고객 및 근로자와의 신뢰 중시하여 두터운 파트너십 유지가능
 - 오너가 직접 경영을 하여 의사결정을 신속하고 과감하게 실행 가능

■ 세계의 주요 가족기업 사례

회 사	경 영 전 략
카길	- 세계적인 곡물 메이저 업체로 2007년 매출 8조 5300억 엔
보쉬	- 독일에 본사를 두고 있는 세계적인 자동차 부품업체로 2007년 매출 5조 6400억 엔 기록
이케아	- 전 세계에 지점을 보유하고 있는 유명 가구업체로 2007년 매출 2조 5800억 엔 기록
야자키	- 올해로 창업 79주년을 맞는 일본의 대표적 자동차부품 회사로 2007년 매출 1조 4900억 엔을 기록하였고, ‘장기안목경영’으로 지난 10년간 꾸준한 성장
DKSH	- 창업 140년의 역사를 지닌 이 회사는 2002년 이후 전문경영인을 영입하고 전통적인 무역회사에서 벗어나 거래기업의 시장정보 및 마케팅 컨설팅까지 제공하는 종합상사 서비스 회사로 탈바꿈
푸조시트로엥	- ‘패밀리 오피스’로 불리는 자산관리운영회사를 별도로 운영하여 보유자산을 최적 분배함으로써 200년 가까이 성장가도를 달림

자료 : 닷케이비즈니스 (2008.12.1).

- 현재의 경제위기는 주주 자본주의의 전형적인 폐단인 기업이 경영실적을 높이기 위해 단기이익만을 쫓는 데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음
 - 안정적 성장을 위해서는 가족기업의 장점인 ‘장기안목 경영’을 배워야 할 것임
 - 단 가족기업의 단점으로 지적되는 지나치게 안정에 치우친 나머지 성장기회를 놓치는 문제점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할 것임

□ 내년 10대 소비 트렌드*

■ 서울대 소비트렌드분석센터가 발간한 ‘트렌드 코리아 2009’에 의하면, 내년 트렌드는 BIG CASH COW로 요약됨

- ① 스펙을 높여라(Better Me) : 배움은 불안에 대한 자구책이기 때문에, 이러닝 시장이 급성장하고 첨단 학습기기 시장 호황이 예상됨
- ② 난 너무 멋져(I'm so hot) : 자기애적인 놀이 성향이 강해짐. 이들은 블로그 활동, 저서 출판 등 표현활동에 적극적이기 때문에 이미지 메이킹 관련 산업이 성장할 것으로 보임
- ③ 다시 집으로(Gotta be cocooned) : 실내에서 여가를 즐길 수 있는 홈엔터테인먼트 관련 상품, IPTV나 케이블TV 등 콘텐츠 산업이 중요해짐
- ④ 생각대로 인터넷(Cross-Internetization) : 휴대폰을 TV, 컴퓨터, 프로젝터 등 다른 기기와 연결하는 ‘모바일 연계성’이 강조됨
- ⑤ 아빠 같은 엄마, 엄마 같은 아빠(Alpha-Mom, Beta-Dad) : 남성 전용 부엌가구 브랜드가 등장하고 아빠와 함께하는 요리교실 강좌가 증가
- ⑥ 소박한 행복찾기(Simply Humbly Happily) : 가족관계에 대해 조명하고 재미와 향수에 대한 욕구도 높아짐. 추억산업의 진화가 예상됨
- ⑦ 취미 대한민국(Hobby-holic) : 전문적인 취미 동호회, 생활 스포츠 붐이 일 것이며, 취미활동 인구가 늘어나는 데 따라 시장도 성장할 것
- ⑧ 고급 문화, 일상 속으로(Casual Classics) : 고전음악, 오페라, 순수미술, 발레, 고전문학, 와인 등 다양한 고급문화 아이템이 대중의 삶과 더 가까워질 것
- ⑨ 무심한 듯 세련되게(Off-air Attitude) : 세심하게 연출했음에도 겉으로는 신경 쓴 티가 나지 않는 스타일이 눈에 띄는 것
- ⑦ 스타와 대중 자리 바꾸기(Wanna-be-star, Wanna-be-mass) : 스타는 대중과 동일시되는 평범하고 자연스런 이미지로 대중에 다가서고, 대중은 스타처럼 치장하고 자기 연출에 매달리며 매체에 등장하는 현상

* “내년 10대 소비 트렌드”(매일경제, 2008.12.5) 기사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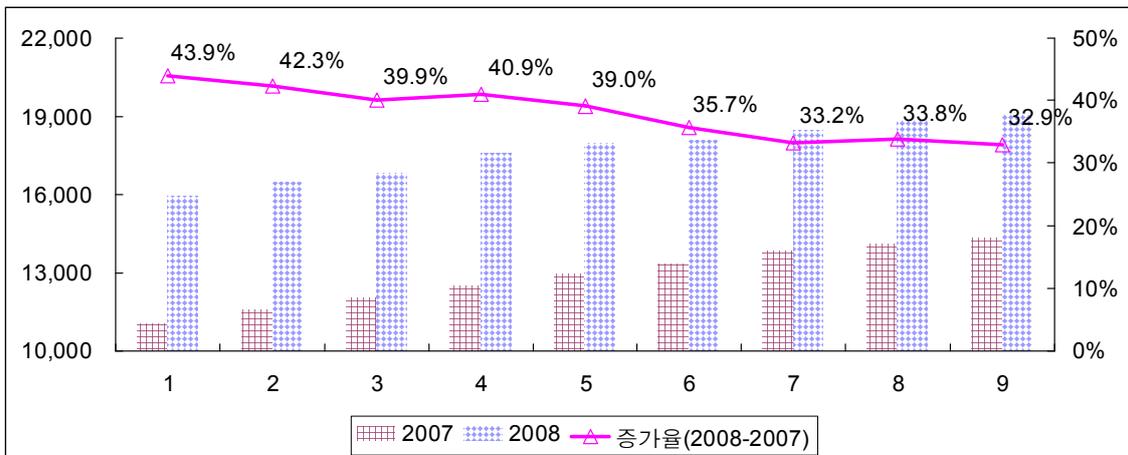
□ 중국 외환보유액의 운용과 시사점

■ (개요) 미국발 금융위기로 달러 표시 자산가격 하락이 심화되면서 세계 최대 외환 보유국인 중국의 외환보유액 운용방향에 세계의 이목이 집중

- 중국의 외환 보유 규모 : 중국은 2008년 9월 말 현재 중국의 외환 보유고는 1조 9,000억 달러를 상회함으로써 단연 세계 최대 외환 보유국임
 - 글로벌 경기 침체로 수출 둔화가 가시화되는 상황에서도 중국의 월별 외환보유액 증가율은 연초보다는 둔화되었지만 여전히 30%대를 기록

< 중국 외환 보유액 추이 >

(단위 : 억 달러)



자료 : 중국 외환관리국(SAFE).

■ (주요 내용) 중국은 외환 보유액을 주로 미국 국채와 지방채 등 안전자산에 투자하고 있으며, 금번 금융위기 극복 과정에서 역할 확대가 기대됨

- 2007년 말 현재 중국의 외환 보유액 중 미국 달러 표시 자산은 65%로 가장 많고, 유로 표시 자산이 25%, 파운드화 표시 자산이 10% 정도를 차지

- 중국은 또 달러화 표시 자산 중 대부분을 국채와 장기 금융기관채에 투자하고 있으며, 주식과 회사채의 비중은 10% 미만으로 추정됨
 - 달러화 표시 자산 중 50% 정도는 장기 국채에 투자하고 있고, 40% 정도는 장기 금융기관채에 투자하고 있음

■ (전망) 중국이 금융위기를 이유로 달러 표시 자산을 처분할 가능성은 극히 낮으며, 자산 구성에 있어서는 주식이나 회사채 비중을 늘려갈 것으로 보임

- 이번 금융위기는 수많은 미국계 금융기관들을 도산시켰음에도 불구하고 달러화의 안전성을 증명하는 계기가 되어 리스크 관리 능력이 취약한 중국으로서는 외환 보유액 운용에 있어 지속적으로 달러 표시 자산을 선호할 것임
- 또한 중국의 미국 국채 대량 매도는 국제금융시장에 혼선을 초래한 데 따른 부담과 달러 가치 하락에 따른 보유 외환의 구매력 하락 효과가 예상됨으로 그러한 조치는 불가능 할 것으로 보임
- 그러나 중국은 5%에 미달하는 낮은 외환 운용 수익률을 개선하는 차원에서 주식이나 회사채와 같은 위험 증권 비중을 늘려갈 가능성은 충분함

■ (시사점) 중국의 외환정책 변화는 국제 금융시장과 외환시장에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으므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장기적으로는 중국 자본의 국내 유치를 위해 노력해야 함

- 중국의 외환 보유액 운용과 환율 정책 변화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자본거래 자율화와 위안화 환율 시장화 시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임
- 막대한 외환 보유액을 재원으로 조성된 중국 국부펀드의 국내 유치를 위해 제도를 정비하고, 중국과의 협력을 강화해야 할 것임

□ 경제위기 난국 타개는 녹색 성장과 녹색 기술로*

- 전 세계적으로 기후 변화에 대응하고 경제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녹색 기술에 기반한 녹색 성장의 패러다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음
 - 녹색 성장 패러다임은 국가 경쟁력 확보와 국민 복지 증진 차원에서 기후 변화에 대응한 녹색기술 혁신과 저탄소 녹색 성장을 망라함
- 국내외 기후변화에 대한 문제 제기와 전략적 접근은 이미 시작되었으며, 녹색 성장은 경제위기를 극복할 돌파구로 인식되고 있음

<기후 변화에 따른 산업 전략 트렌드>

구 분	내 용
국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는 국내 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는 유망분야를 적극 발굴하여, R&D투자를 통한 세계수준의 기술력 확보를 목표로 함 - 온실가스와 환경오염을 줄이고 신 성장 동력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저탄소 녹색 성장’을 표방 - R&D 투자가 활성화 되어야 현재 경기 침체를 극복 할 수 있음
국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구 온난화 문제는 개선되지 않고 오히려 악화 되고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엘 고어의 ‘불편한 진실’이 ‘불편한 현실’ 이 되었음 · 오바마 당선인의 ‘신에너지 경제’를 핵심으로 향후 청정에너지, 재생에너지 관련 사업에 적극 투자 예상 - 스텐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국내 총생산의 약 1%에 해당하는 비용만 투자해도 기후변화에 따른 악재를 피할 수 있음

- 녹색기술은 기후 변화에 대응하고 나아가 국가 경쟁력을 제고시킬 가장 효과적인 무기로 기술 확보를 위해 R&D투자를 확대해야 함
 -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R&D투자 방향 정립과 R&D추진 방식 전반에 대한 개편 성공이 관건임

* 이 글은 『환경 Business』 (2008.12.08)에 실린 글을 요약, 정리, 재구성한 것임
 ** 스텐 보고서(Stern Review)는 영국의 경제학자 니콜라스 스텐 경이 2006년에 발표한 지구온난화의 경제적 파급효과에 대한 보고서임

□ 천시(天時), 지리(地利), 인화(人和)

맹자(孟子)는 외국의 침입으로부터 나라를 지킬 수 있는 조건에 대해 말하면서 ‘天時不如地利(천시불여지리), 地利不如人和(지리불여인화)’라고 하였다. 천시란 하늘로부터 주어진 기회를, 지리란 땅의 이로움을, 인화란 사람들 간의 화합을 의미한다. 어떤 뜻을 달성할 때, 하늘의 기회를 얻어도 지리적 도움을 얻지 못하면 성취할 수 없고, 지리적 도움을 얻어도 사람의 화합이 없으면 성취할 수 없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하늘의 시간과 지리적 이점과 사람들 간의 화합이 모두 중요한데 이중 사람들 간의 화합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다.

비관적인 전문가들은 최근의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세계경제 침체가 1970년대의 1차 석유파동을 능가할 수 있고 1930년대의 대공황에 버금할 수도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우리나라와 같이 대외 의존도가 높은 경제구조를 가진 나라의 경우 세계 경제 침체에 따른 파급 영향은 다른 나라에 비해 훨씬 심각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업들도 하늘의 때와 지리적 이로움은커녕 혹독한 구조조정이라는 시련의 시간이 기다리고 있다. 어려운 기업 경영환경이 예상되고 있는 시점에서 경영자들은 맹자의 ‘천시불여지리, 지리불여인화’를 다시 한 번 되새길 필요가 있다.

기업가가 먼저 고통을 분담하고 고용을 유지하려는 모습을 보일 때 근로자들은 기업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자발적으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도모할 것이다. 이를 통해 기업들은 위기 관리능력을 강화하고 경쟁력을 한층 더 높이는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 어려운 시기일수록 조직의 화합을 다지기 위해 인간 중심의 리더십이 필요한 때이다. 그래서 인화를 통해 험한 파고를 헤쳐나가면서 하늘의 때와 지리적 이로움이 갖춰질 때 새로운 도약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

**“ 자유는 다만 강제 없는 상태가 아니라,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적극적인 힘이다. ”**

니체(1844~1900) : 독일의 철학자